

# 민간공원 수사, 광주시정 '블랙홀' 됐다

### 수사 장기화에 도시철도2호선·광주형일자리 등 현안 묻혀 시 공무원들 불안... '청렴도 꼴찌' 평가에 광주 이미지 상치

검찰의 광주 민간공원 특례 2단계 특혜 의혹 수사가 민선 7기 광주 시정의 '블랙홀'로 떠오르고 있다. 검찰 수사가 장기화하면서 광주 도시철도 2호선 착공, 광주형 일자리 성사, 아등산 관광단지 조성 등 민선 7기 광주시의 굵직한 성과는 갭그리 못했다.

11일 광주시와 검찰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광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고발로 시작된 민간공원 특례 2단계 수사가 9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검찰은 사전 조사를 마치고 9월부터 광주시와 시 감사위원회, 광주도시공사, 정중제 행정부시장과 윤영렬 감사위원장 자택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최근엔 민간공원 우선협상대상자인 한양건설과 호반건설까지 수

사판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공무원에 대한 소환조사도 대대적으로 펼쳤다. 벌였다.

검찰은 수사 결과를 토대로 정 부시장과 윤 감사위원장, 이 전 국장 등 3명이 '공모' 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이 전 국장만 기소돼 11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고 정 부시장과 윤 감사위원장 등은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검찰은 기소도 하지 않고 있다.

지난 10월8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찬석 광주지검장은 '민간공원 특례사업 수사 진행 상황'을 묻는 박지원의 질문에 "사업 진행에 차질을 주지 않기 위해 이달 안에 1단계 수사 결과를 발표하려고 한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국감 이후 두 달이 지나도록 1단계 수사 결과는커녕 아무런 결과물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광주시와 검찰 안팎에서는 민간공원 우선협상대상자 변경 과정에서 금품 수수나 청탁, 유착 등의 직접적인 혐의를 찾지 못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이 무리하게 먼저 털기식, 밀어붙이기식 수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검찰의 수사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광주시 분위기는 '초상집'이다. 민선 7기 들어 공론화를 통한 도시철도 2호선 착공, 노사상생형 일자리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 성사, 아등산 관광단지 조성 등 굵직한 현안은 이슈에서 묻혔다.

광주시 관계자는 "애초 협약 체결을 10월 말 목표로 했지만 연말

까지 늦어지고 있다"며 "검찰 수사의 불통이 어디로 튈지 모르다 보니 사업자들이 불안해하며 눈치만 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광주시청 공무원들도 검찰을 무서워하고 있다. 이 전 환경생태국장도 민간공원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했거나 뇌물을 받았다는 소식이 알려지지 않고 있음에도 구속되면서 공무원들의 불안감은 크다.

광주시의 이미지도 바닥으로 떨어졌다. 전날 국민권익위가 발표한 2019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광주시는 올해 종합청렴도에서 지난해 3등급보다 2등급 하락한 5등급으로 꼴찌를 기록했다.

민간공원 특례2단계 사업 과정에서 불거진 검찰 수사가 광주시 청렴도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광주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검찰이 민간공원 수사를 너무 오랫동안 끌고 있다"며 "혐의가 있다면 있는대로, 없으면 없는대로 발표하고 조기에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봉우 기자

## 동구,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민·관 합동점검 실시

광주 동구가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동구는 담당공무원, 민간 환경단체로 꾸려진 2개 점검반을 편성해 지속적인 민원 유발사업장과 다수 민원발생 사업장을 우선 점검할 예정이다.

또 점검기간 동안 환경오염 취약지역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단속과 감시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점검내용은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가동, 기타 환경관련법 준수여부 등이다.

## 서구, 2019 서구자원봉사자대회 성료

서구자원봉사센터는 지난 9일 서구청 대회의실에서 한해를 결산하고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한 '2019 서구자원봉사자 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는 서구 자원봉사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 활동보고, 유공자 표창, 축하공연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유공자 표창에서 양경자 금호2동 캠프장이 행정안전부장관표창을 수상하였고, 이밖에도 시장표창, 서구청장표창, 서구자원봉사센터이장표창 등 총 27명이 수상하였다.

## 남구 "유기동물 구조·운반 사업자 모집합니다"

광주 남구는 11일 "길거리에 버려지는 유기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2020년도에 유기동물의 구조부터 운반까지 총괄적인 업무를 수행할 사업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유기동물 구조·운반 사업 참가 자격은 유기동물 구조 및 운반이 가능하면서 구조·운반에 필요한 차량 및 기자재, 임시보호 조치할 수 있는 시설을 모두 갖춘 동물보호 활동 관련 법인이나 단체, 개인 사업자이다. 사업 선정자는 명절 당일을 제외하고, 연중 24시간 유기동물 구조·운반에 전념해야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종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 북구, 특성화고 학생 진로 탐색 기회 제공

광주 북구가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현장 견학에 나선다.

북구는 "오는 13일 관내 특성화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역의 우수 기업과 일자리 유관기관을 탐방하는 '청년과 기업을 잇는 잡담(JOB TALK)'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청년과 기업을 잇는 잡담'은 예비 청년 취업자인 특성화고 취업반 학생들에게 기업 탐방 및 취·창업 멘토링 기회를 제공해 지역 내 우수기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취업 의지를 고취하고자 마련됐다.

지난달 첫 투어에서 광주공업고등학교 학생 60여명과 함께 지역의 광산업 분야 우수기업인 ㈜음토닉스와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해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창업 지원 제도 등을 안내했다.

## 광산구 초등학생 꿈의 오케스트라 첫 연주회

광주 광산구가 14일 광산문화예술회관에서 '꿈여울 광산 청소년 오케스트라'의 첫 번째 정기연주회 '첫 만남, 첫 울림, 첫 걸음'을 개최한다.

꿈여울 광산 청소년 오케스트라는, 민민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보호하는 베네수엘라 국립 청년 및 유소년 오케스트라 육성재단 '엘 시스템아(El Sistema)' 모델을 지역사회에 접목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광산구는 4월 다양한 계층의 60명 초등학생들을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모집해, 음악을 배우며 협력·성장할 수 있는 장을 제공했다. 이날 연주회는 단원들이 그간 배움을 지역사회에 선보이는 자리다. 임형택 기자

## 민영돈 조선대 총장 취임

"미래형 인재 양성·학생중심 교육혁신"



11일 오전 조선대학교 해오름관 대강당에서 열린 민영돈 제17대 총장 취임식에서 박관석 조선대 법인 이사장과 민 총장이 교기를 흔들고 있다.

민영돈 조선대학교 신임 총장이 11일 취임식을 갖고 "미래형 인재 양성을 위한 학생 중심의 교육혁신"을 선포했다.

조선대는 이날 오전 10시30분 대학 해오름관 대강당에서 제17대 총장 민영돈 박사 취임식을 개최했다.

민영돈 총장은 취임사에서 대학이 그간 겪은 어려움과 갈등을 깨닫고 '조선대학교의 백년대계'를 수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민 총장은 "학령인구가 급감하고 대학의 재정난이 가속화 되고 있는 어려운 교육환경에서 신임

총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과 막중한 사명감을 안고 새로운 항해에 나선다"며 "미래형 인재 양성을 위한 학생 중심 교육혁신 △자율에 기반한 특성화와 지역사회 연계를 위한 산학혁신 △학생 중심의 행정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경영혁신을 약속했다.

민 총장은 "재임 기간 이 세 가지 분야의 혁신을 통해 100년 대학의 인재양성 요람을 실현하겠다"면서 "구성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 소통과 신뢰가 필요하며, 지역민에게서도 아낌없는 지지와 격려, 편달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취임식에는 박관석 학교법인 조선대 이사장과 교수·직원·학생·동문 등 구성원들을 비롯해 전호준 총장 등 전임총장, 명예교수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박관선·김경진 국회의원, 임택 동구청장 등 지자체장, 김혁종 광주·전남총장협의회장 등 지역 대학 총장, 송중욱 광주은행장 등도 참석해 취임을 축하했다.

이민수 조선대 총동창회장은 "민영돈 총장의 리더십과 대학구성원들의 단합으로 모교가 새 출발할 수 있도록 30만 동문과 함께 모든 협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인호 기자



## 코레일 전남본부 시민자문단 간담회

코레일 전남본부(본부장 김양숙)는 11일 시민참여자문단 간담회를 열고 기업의 사회적가치 실현 강화와 철도공공성 향상 방안을 논의했다.

지역의 학계와 시민사회단체, 사회경제계연구소, 복지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시민참여자문단은 이날 간담회에서 올해 전남본부가 시행한 각종 사회적가치 실현 활동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어 자문단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기반과 판로지원을 위한 합동 구매상담회 개최, 사회적기업 협력 사업인 경전선 무인역 승차·테마역 조성 등 2020년 프로그램 발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양숙 전남본부장은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통해 자문위원의 의견을 듣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철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광고 직통 ☎ 062)224-5800  
팩 스 222-5547

■ 세무기장·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박우열 세무회계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www.nhis.or.kr

"건강보험, 月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6년 현재 국민은 한 세대당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으며,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금액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건강보험 혜택 183,961원  
월보험료 납부 104,062원  
1.77배

2016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보험료	급여비	비율
240,833원	125,531원	1.1배
79,147원	48,103원	2.1배
48,103원	26,697원	2.7배
26,697원	-	5.3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호남신문 공익 캠페인

"**딱 한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입니다**"

한 잔만 음주를 해도 운전대를 잡지 않고, 전날 과음하거나 늦게까지 음주를 한 사람은 다음 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근을 하는 등 안전한 운전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다 함께 약속해주세요.